

馬王堆 漢墓 出土物을 통해 본 漢代의 服飾 研究

배화여자전문대학 전통복식과
전임강사 金素賢

目 次	
I. 序論	2. 쓰개類
II. 漢代의 服制	3. 신발類
III. 出土物의 考察	IV. 結論
1. 衣服類	參考文獻

I. 序論

우리나라 古代服飾의 淵源이 北方騎馬民族의 服飾에 있다면 三國時代 이후로는 中國文化의 影響을 크게 받아서 固有의 襦袴制와 中國服飾이 병존하는 새로운 服飾文化를 이루게 되었다.

中國服飾은 漢代의 服飾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따라서 漢의 服飾에 대한 이해는 우리 服飾文化의 실체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稿에서는 馬王堆漢墓 出土物을 통하여 漢의 服飾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972年에서 1974年初에 걸쳐 長沙의 馬王堆에서 3基의 漢墓가 발굴되었다. 발굴된 3基의 漢墓중 1號墓는 동쪽에, 2號墓는 서쪽에, 3號墓는 1號墓의 남쪽에 접해있다. 2號墓에서 출토된 3개의 印章(長沙丞相, 軼侯之印, 利蒼)으로 보아 漢代 초기의 諸侯였던 長沙國丞相인 利蒼과 그의 가족묘지임을 알 수 있는데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利蒼은 呂后2년(BC186)에 죽었다. 3號墓는 利蒼의 아들의 墓로서 漢文帝 12년 2월(BC168)에 장사지낸 것임이 木牘에 새겨져 있으며 1號墓는 3號墓보다 몇년 늦게 追葬된

것으로 墓主는 利蒼의 妻이다.¹⁾ 2號墓는 일찍부터 도굴되어 부장품등이 부패되었지만 1·3號墓에는 많은 부장품들이 잘 보존되었고, 특히 1號墓에서는 각종 옷감과 服飾品등 대량의 絹織物類가 출토되었다.

本 연구는 馬王堆 漢墓 出土物들을 중심으로 한 遺物자료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輿服志, 社會史料雜記등의 문헌자료, 그리고 보조자료로서 漢代의 繪畫史料등을 가지고 漢代의 服飾生活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단, 遺物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문헌을 통한 遺物자료의 고찰이라는 점이 本研究의 한계로 남으며 染織物은 本稿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II. 漢代의 服制

漢代는 中國服飾史上 그 기본적 체계, 즉 冠服의 체계가 확립된 시기이다. 後漢 明帝는 永平2年(59年)에 輿服令을 내려 周代에서 秦·前漢을 거쳐 계승되어오던 宮廷貴族 및 文武百官의 服裝양식을 法令으로 정하였다.²⁾ 이후로 歷代中國王朝는 輿服令에 의하여 公服을 규정하는 전통이 성립되었다.

1) “軼侯和長沙國丞相”, 「文物」, 1972, 9期, PP14~15

2) 「後漢書」輿服志 30, 4.

魏晉南北朝時代의 北朝와 遼, 金, 元, 淸 등 이민족 왕조의 경우에는 각각 民族固有의 服裝양식을 服制의 기본으로 삼기도 했지만 佩綬와 十二章의 制度는 後漢時代의 양식을 그대로 수용하므로써 漢代의 服制는 그 후 2,000년간 中國의 公服을 규정하게 되었다.

漢代에 이루어진 公服의 制度는 中國은 물론 일본, 한국, 베트남 등 東아시아 諸王朝의 服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³⁾, 특히 우리나라는 漢朝와의 접촉이 일찍부터 있었으므로 漢의 服制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漢의 服制의 영향은 지배계층에 한정된 것이었고, 일반 민중의 고유 복장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漢代에는 中國內에 胡服의 보급이 행해졌다. 胡服은 趙武靈王에 의하여 채용된 匈奴의 服裝이었지만⁴⁾ 그 기능성과 기마에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그 후 中國사회에 널리 유행하여 漢代의 軍服, 수렵복, 여행복, 민간의 작업복으로 사용되었다. 北魏時代에는 袴褶이 文官의 公服에 채용되기도 하였다. 北方遊牧騎馬民族의 服裝이 中國사회에 흡수되는 과정과 병행하여 後漢 靈帝(168~188) 이후로는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제국과의 활발한 文物교류로 이란系의 服裝양식이 도입되는 등 漢代의 服裝은 점차 다채로워지게 되었다.

漢代의 服制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前漢代에는 公式의 服制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宮廷官吏의 服裝은 기본적으로 秦代의 制度를 따랐다. 祭服으로 天子는 長冠, 衮, 文武百官은 長冠, 衮服을 입었으며, 長冠을 쓸 때는 黑色 禪衣를 입고, 속에는 赤色の 緣이 있는 中衣를 착용하며 袴, 襪은 모두 赤色을 사용하였다. 검소한 것을 숭상한

文帝(BC 180~157)는 周代부터 내려오던 五時服色⁵⁾을 폐지하고 文武官의 朝服에 사계절 모두 黑色 禪衣를 착용토록 했다.⁶⁾

皇后의 祭服은 紺衣 皂裳이며, 朝服으로 착용하는 蠶服은 靑衣 纁裳으로 周代 이래 中國고유의 服裝인 衣와 裳이 연결된 深衣制였다.

官等에 따른 衣服의 격차는 많지 않았고 다만 衣冠, 組綬 등의 재료, 색상에 차이를 두어 紅衣는 上服, 靑綠은 그 다음이며, 吏卒은 黑色, 평민은 白色, 죄수는 赭色이었다.⁷⁾ 前漢에 통용되던 복장양식은 품이 넓고 소매가 큰 曲裾袍에 大口袴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庶民服裝은 규정도 없고, 금지도 없었으므로 부유한 사람들은 호화로움이 지나쳐서 제후의 服裝을 능가하기도 하였다고 「西漢會要」에 기록되어 있다.⁸⁾ 그러므로 사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漢成帝 永始4年(BC 13年)에 몇가지 禁令을 내렸지만 아무런 변화도 얻지 못하였다.

後漢 明帝는 永平2年(59年)에 冠服制度를 정하여 祭服으로 冕冠, 長冠, 委貌冠, 皮弁, 爵弁, 建華冠, 方山冠, 巧士冠을 제정하고, 祭服에는 반드시 絳色 緣이 둘러진 中衣⁹⁾를 입고, 赤襪, 赤寫, 絢履를 신고 大佩를 차도록 했다. 또한 百官은 五時服色에 따라 입도록 하였다. 朝服으로는 通天冠, 遠遊冠, 高山冠, 進賢冠, 法冠, 武冠, 却非冠, 却敵冠, 樊噲冠, 術士冠, 鬲鳥冠이 제정되었고, 이 밖에 諸王 휘하의 謁者는 長冠을 朝服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朝服에는 반드시 黑緣이 둘러진 中衣를 착용토록 했다. 太皇太后로 부터 公卿夫人에 이르기까지의 服裝은 모두 深衣制인 單衣形制로서 前漢代와 마찬가지로 이다.¹⁰⁾

3) 王宇清(1976), 「中國服裝史綱」, 條訂本(台北: 中華大典編印回), P.12.

4) 沈從文은 商代服裝의 특징중의 하나로 소매가 좁고 衣의 길이가 짧아 무릎에 오는 것을 胡服이라 하여 胡服의 착용시기를 商代로 올려보았으나 胡服과 漢服을 구별짓는 여밈방식이나 袴의 착용여부등 구체적인 단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5) 봄에는 靑色, 여름에는 朱色, 늦 여름에는 黃色, 가을에는 白色, 겨울에는 黑色으로 계절에 따라 衣色을 구별하였다.

6) 杉本正年(1979),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東京: 文化出版局), PP. 158~60

7)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P. 104

8) 「西漢會要」卷17, 13~15

9) 옛 祭服, 朝服 밑에 받쳐 입은 속옷으로 深衣制이다.

10) 「後漢書」輿服志 30, 1~20

근육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文人, 士人, 老人은 長襦, 長裙을 입었다. 長襦에는 黑緣이 대어졌고, 머리에는 幅巾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庶民 男子는 襦, 袴를 착용하였으며 貧者는 短褐를 착용하였다.¹¹⁾

일반 婦女는 上衣下裙 혹은 길이가 짧은 長襦에 袴를 입었다.¹²⁾

Ⅲ. 出土物の 考察

馬王堆 漢墓에서 出土된 대량의 진귀하고 귀중한 文物은 漢代 初期의 안정된 사회와 발전된 경제, 고도의 문화 및 기술수준, 그리고 봉건 귀족의 사치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알려준다.

1. 衣服類

馬王堆 3號 出土의 遺策에 의하면 楚服, 漢服, 胡服으로 의복을 크게 분류하고 있다.

王宇清은 東漢以前까지의 中國禮服이 上衣下裳制이며 전통적인 服裝형태는 交領右衽이라 하였고,¹³⁾ 沈從文은 商·周 이래 漢族 固有服의 造形은 曲裾 襟 連衣裙이라 하였으며¹⁴⁾, 何浩天은 上下가 나뉘지 않고 폭이 넓은 옷이라 하였다.¹⁵⁾ 이상을 종합하면 漢의 服裝은 交領, 曲裾, 右衽 連衣裙 寬博制 혹은 上衣下裳制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楚服과 漢服의 구별은 어렵다. 楚는 高朝의 출신지로서 지금의 湖南·江西부근인 중국 남부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옷이 착용되었던데 반하여 長安은 北部의 추운곳이므로 長衣를 입는 것이 보통이었다.¹⁶⁾

옷길이의 長·短이 楚服과 漢服을 구별짓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胡服은 上下가 분리된 襦袴制로서 趙 武靈王 19년(BC 307)에 채용되어 착용되었으며, 左·右衽의 차이는 胡服과 漢服을 구별짓는 점

다.

3號墓에 副葬되었던 衣類는 부패되고 남아있는 것이 없어 遺策의 楚服, 漢服, 朝服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禪衣, 襜褕

「說文」에 의하면 禪은 單이라는 뜻이다. 禪衣는 안감이 없는 深衣型 흘겹옷¹⁷⁾으로 크게 2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曲裾禪衣로서 襟衣라고도 하며, 또 하나는 直裾禪衣로서 襜褕라 한다.



〈그림 1〉 馬王堆一號漢墓帛畫中部
(출처:「長沙馬王堆一號漢墓, 上」)

「方言」四에 繞衿謂之幫(裙)이라는 언급이 있다. 衿이란 衣領 혹은 衣襟을 일컫는 것으로 옷깃을 뒤쪽으로 감는 것을 통상 幫이라 부른다는 것인데¹⁸⁾

이것이 바로 曲裾이다. 〈그림1〉의 墓主와 그를 따르는 3人의 시녀는 모두 曲裾를 착용하였다. 「漢書」列傳 十五에 ‘充衣紗縠禪衣, 曲裾, 後重交輪’라고 있다. 즉 充은 紗縠의 禪衣를 착용했는데 曲裾이며, 뒤에 交輪를 늘였다는 것이고 그 注에 ‘如淳曰, 交輪, 割正幅, 使一頭狹若燕尾, 垂之兩旁, 見於後, 是禮深衣續衽鉤邊’이라고 하여 交輪란 한 폭을 자르되 한쪽 끝을 좁게하여 제비 꼬리처럼 만들고,

11) 周錫保(1984), 「中國古代服飾史」(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P. 84

12) 杉本正年(1979), P224

13) 王宇清(1976), P10

14) 沈從文(1981),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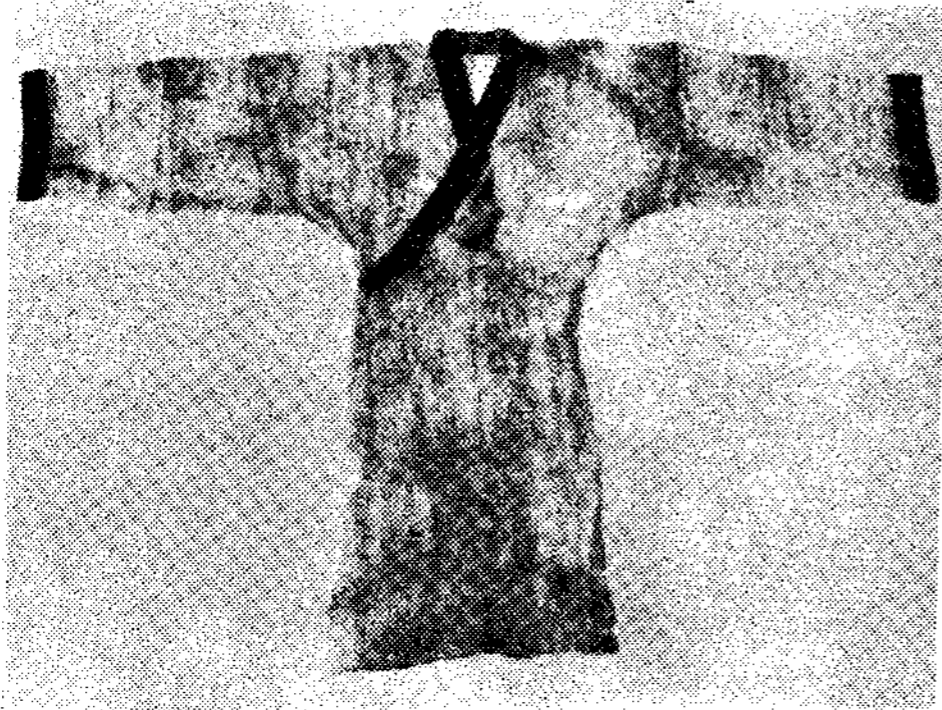
15) 何浩天(1966), 「中國袍服織繡選華」(台北: 國立歷史博物館), P8

16) 沈從文(1981), P62

17) 「急就篇」, “禪衣…”의 顏注에 ‘禪衣似深衣而裏大, 赤以其無裏, 故呼爲禪衣’

18) 林巳奈夫(1976), 「漢代の 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그것을 양쪽에 드리워 뒤쪽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禮에서 말하는 續衽鉤邊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馬王堆一號漢墓 素紗禪衣
(출처:「長沙馬王堆一號漢墓下」)

〈그림 2〉는 直裾禪衣 (옷길이 160cm, 화장 97.5cm)로서 右衽, 筒袖이며, 깃과 袖口에 眞赤色 문양이 있는 파일 錦으로 緣을 둘렀다. 이와같은 구조의 옷이 中衣¹⁹⁾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옷은 中單類로 생각된다. 옷감은 매미 날개처럼 얇은 由白色의 素紗로서 옷의 上部는 織幅 그대로의 옷감 4幅을 사용했고, 下部는 半幅의 옷감 4幅을 사용했다.

한편 소매가 좁고 直배래의 禪衣는 溝라고 한다.²⁰⁾

直裾禪衣는 襜褕라고도 하는데²¹⁾ 길이가 짧은 것을 短褕라 하였다.²²⁾ 襜褕의 특징중의 하나는 緣이 없다는 점이며, 襜褕는 官리 뿐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도 착용한 服裝으로서 소매폭과 품이 넓으며 帶로 여몄다. 襜褕는 통상 布로 만들고 緣이 없으며, 「方言」의 疏證에 短는 褐로 만든다는 것으로 보아 勞働服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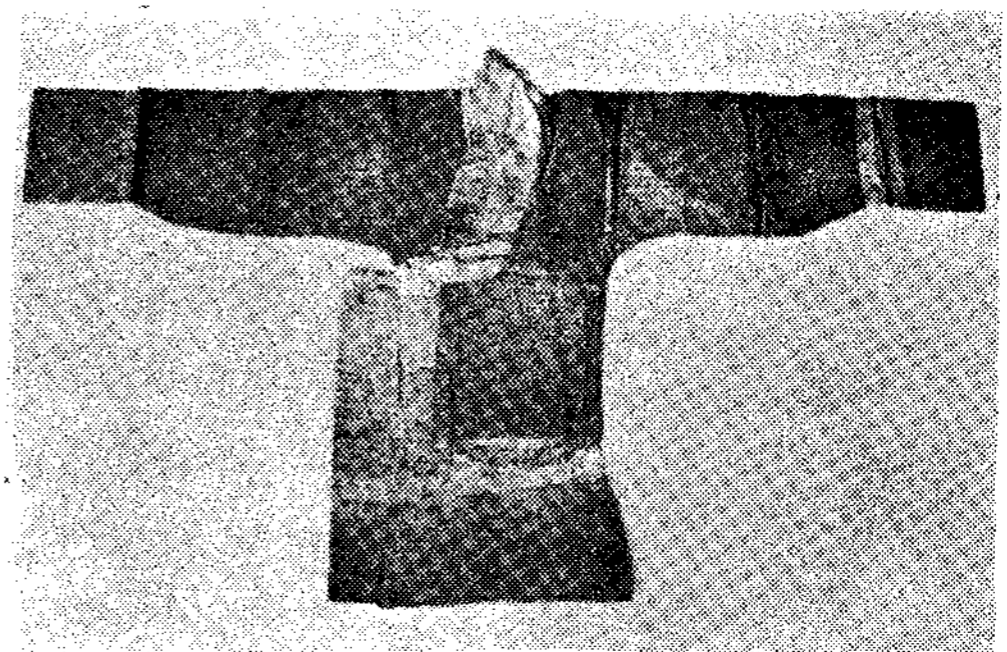
2) 袍, 襦, 袿袍

「釋名」釋衣服에 의하면 袍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옷으로 苟라는 의미이며, 內衣를 덮는 것이고 上下가 연결되었으며 緣이 가해진 것이라 하고 있다. 발 끝까지 내려오는 긴 袍를 입은 모습은 畫像石이나 土俑등에도 많이 보인다. 漢代의 일반적인 袍의 형태는 넓고 큰 소매에 수구가 좁아지는 스타일로서 〈그림 1〉의 衣服양식이 그 한예이다. 위로는 帝王公卿, 아래로는 百官의 衣服에 이르기까지 별 차이가 없고, 모두 袍라고 불렀다.²³⁾

「方言」四에는 ‘褕明謂之袍’라고 있고 그 注에 褕明이란 長褕라고 설명하고 있어 길이가 긴 褕를 袍라 일컫은 것을 알 수 있다. 「釋名」釋衣服에 ‘褕는 煖(따뜻하다)이라는 의미로서 温煖이다’라고 하여 褕가 보온을 위한 衣類임을 알려준다. 褕를 一名 曲領이라 한 것은 「方言」四에 ‘褕를 西南지방인 蜀漢에서 曲領 혹은 褕라고 부른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형태는 袍와 유사하나 길이가 짧고 소매가 넓으며 左衽인 袍를 襦이라 한다. 襦는 겹옷이며 제일 위에 입는 上衣인데²⁴⁾ 이것이 바로 袴와 더불어 趙武靈王代에 채용된 胡服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숨을 두어 만든 袍를 통상 襦이라 칭하였다.²⁵⁾



〈그림3-1〉 馬王堆一號漢墓 濃赤色紗綿入袍
(출처:「長沙馬王堆一號漢墓下」)

19) 「後漢書」輿服志 30, ‘緝緣領袖爲中衣, 示其赤心奉袖也’

20) 「釋名」釋衣服, ‘溝, 禪衣之無胡者也, 言袖夾直, 形如溝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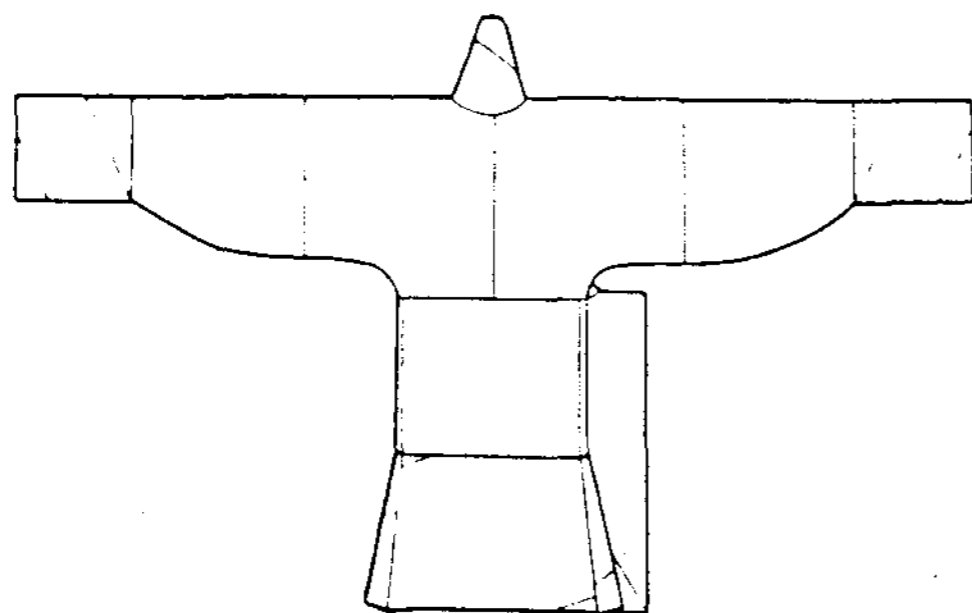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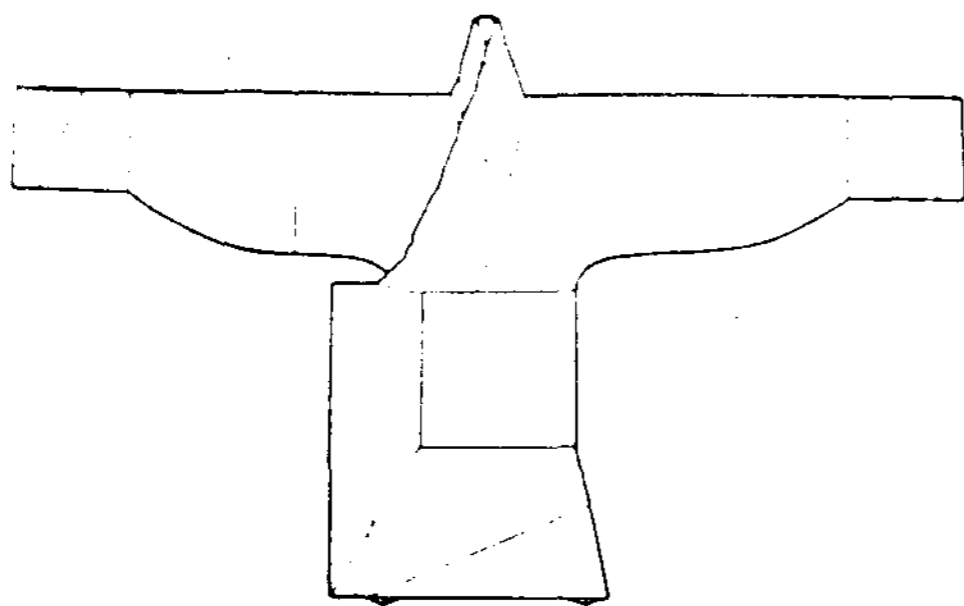
21) 「急就篇」“襜褕…”의 顏注에 ‘襜褕, 直裾單衣也, 謂之襜褕也, 取其襜褕而寬裕也’

22) 「方言」四 ‘襜褕… 其短者謂之短褕, 以布而無緣’

23) 沈從文(1981), P104

24) 「急就篇」“襜褕拾複褶…”의 注에 ‘褶謂重, 衣之最在上者也, 其形若袍短身而廣袖, 一日左衽之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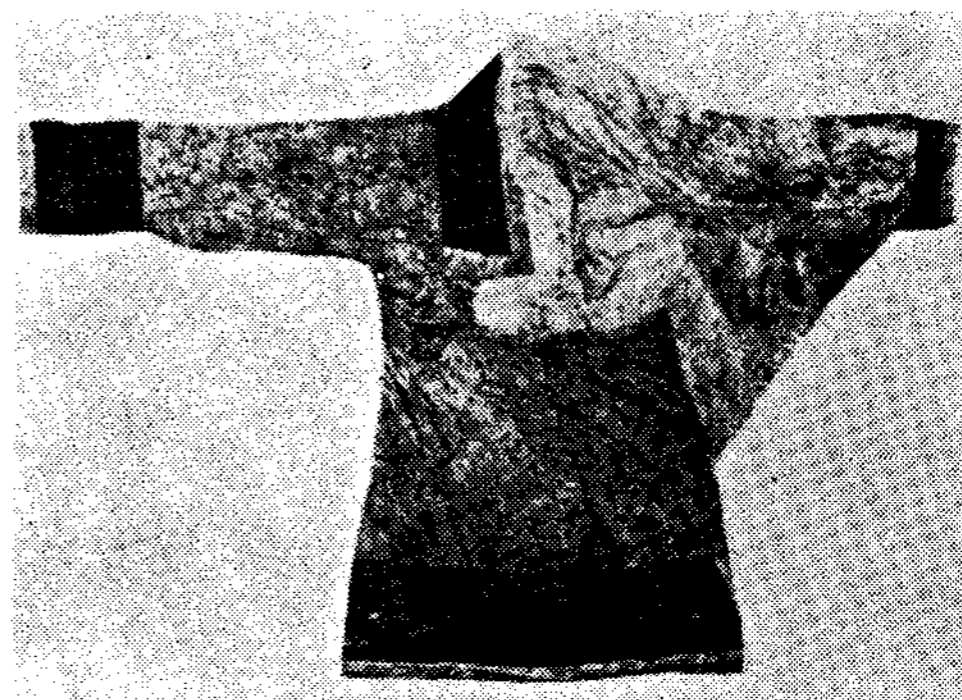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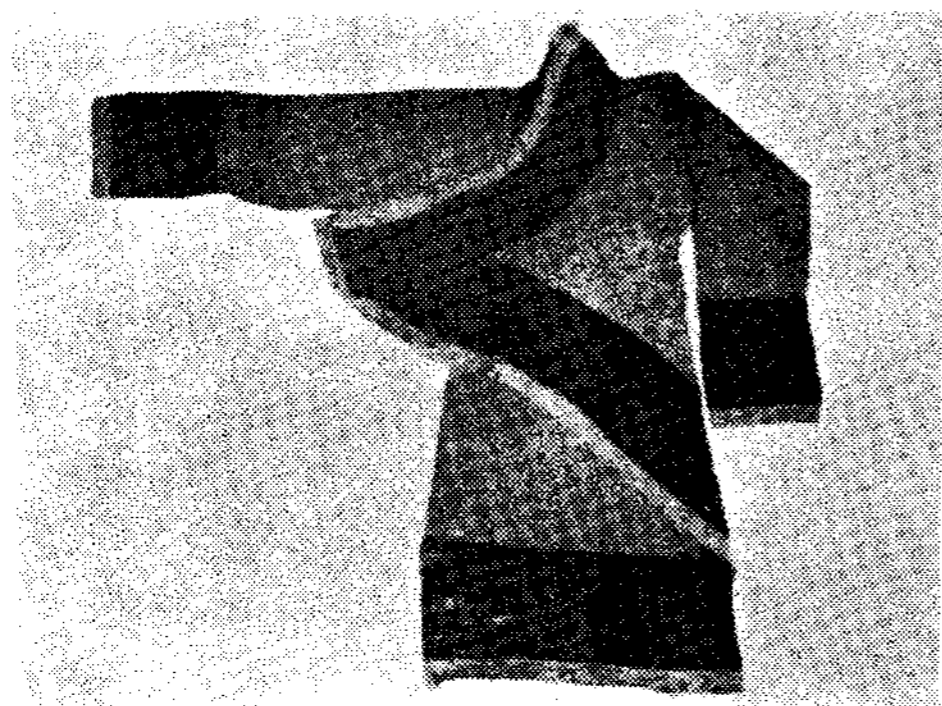
25) 林巳奈夫(1976), P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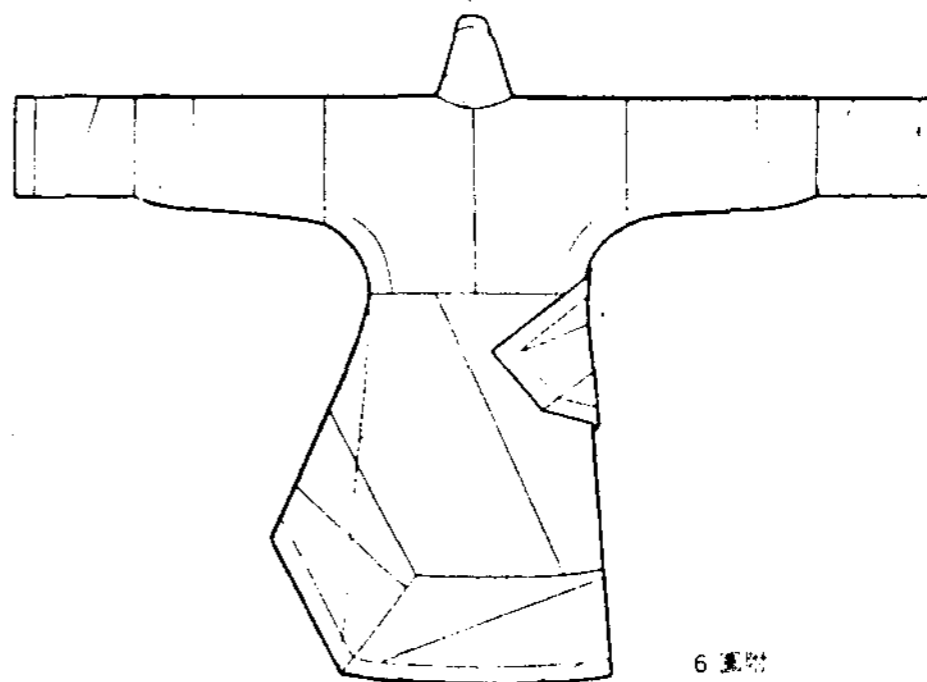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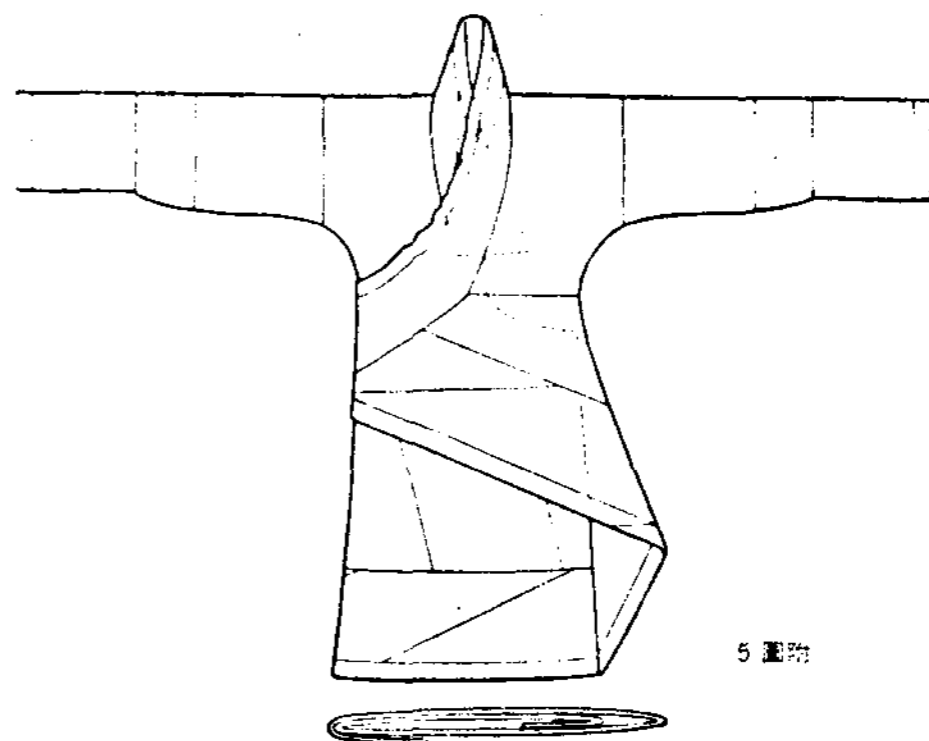
〈그림 3-2〉袍〈3-1〉의 설명도
(출처:「長沙馬王堆一號漢墓 上」)

〈그림 3-1〉은 直裾로서 소매가 크고 긴 袍이다 (옷길이 130cm, 화장 118cm). 겉감은 무늬가 있는 絳紅色 紗이며 안감과 緣에는 白紗를 사용했다. 옷의 上部는 식서 방향의 옷감이 6장, 下部 및 緣은 사선방향으로 각각 4장이 들었다.

〈그림 4-1〉은 曲裾이며 소매가 넓고 긴 袍(옷길이 150cm, 화장 125cm, 소매통넓이 37cm, 수구 28cm)로서 同墓 出土物 중 이런 종류의 袍가 9件이다.



〈그림 4-1〉 馬王堆一號漢墓 朱紅色羅綺綿入
(출처:「長沙馬王堆一號漢墓 下」)



〈그림 4-2〉袍〈4-1〉의 설명도
(출처:「長沙馬王堆一號漢墓 上」)

겉감은 朱紅色 羅綺이며 안감, 緣, 袖은 白色 平絹으로 이러한 袍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옷감은 直裾襜褕의 약 1.5배이다.²⁶⁾ 옷의 上部는 식서 방향의 옷감

26) 「長沙馬王堆一號漢墓上册」, '直袍袍 一件 需表裏共二三米, 合漢制十丈左右... 曲袍袍 則 需三二米, 合漢制十四丈左右'

6장, 下部는 사선방향으로 4장, 緣은 사선방향으로 3장이 들었다.

〈그림 5〉는 死者의 주변에 있던 家內奴隸로서 銀으로 雲文을 그린 左襟의 긴 袍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6〉의 인물들은 속에 2장의 襦를 겹쳐 입었고, 表衣로 桂袍를 입었으며 帶를 낮게 허리에 맸다. 桂袍는 일반적으로 白色 안감을 대고 폭이 넓은 緣飾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禮記」注에 ‘六服²⁷⁾은 전부 袍制로서 홀겹이 아니고, 白紗를 안감으로 사용한다’, ‘漢代의 桂袍는 袍에 襪繪를 들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釋名」釋衣服에 ‘婦人의 上服을 桂라 하는데 아래까지 늘어지며 그 모습이 위로 넓고 아래는 좁아 칼 또는 圭와 같다 하여 桂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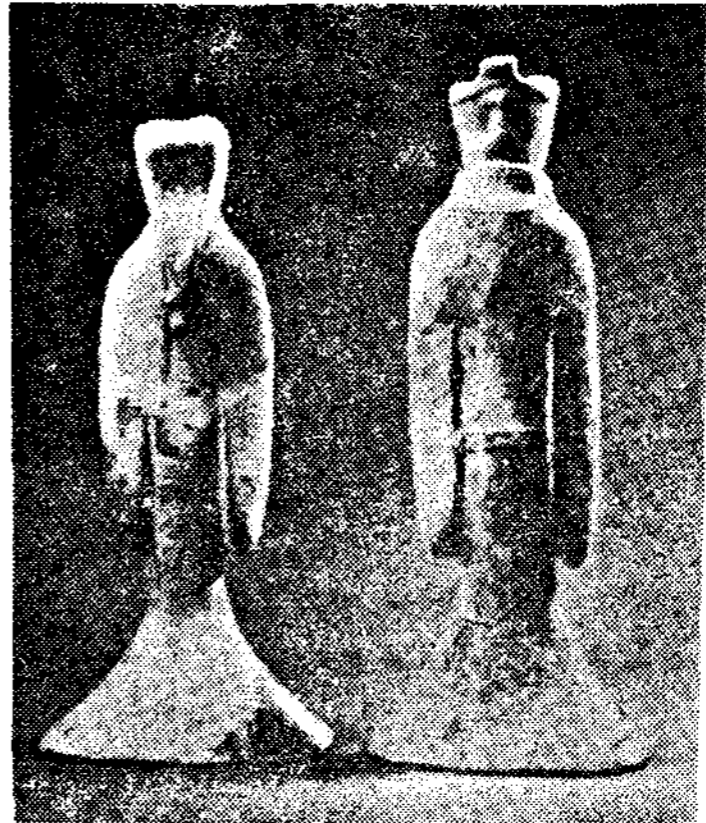
〈그림 1〉의 인물들은 모두 曲裾의 袍를 입고 帶로 여몄다. 墓主가 입고 있는 桂袍의 재질은 金絲로 자수를 한 綺인듯 하다. 曲裾는 부녀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예외가 아닌 衣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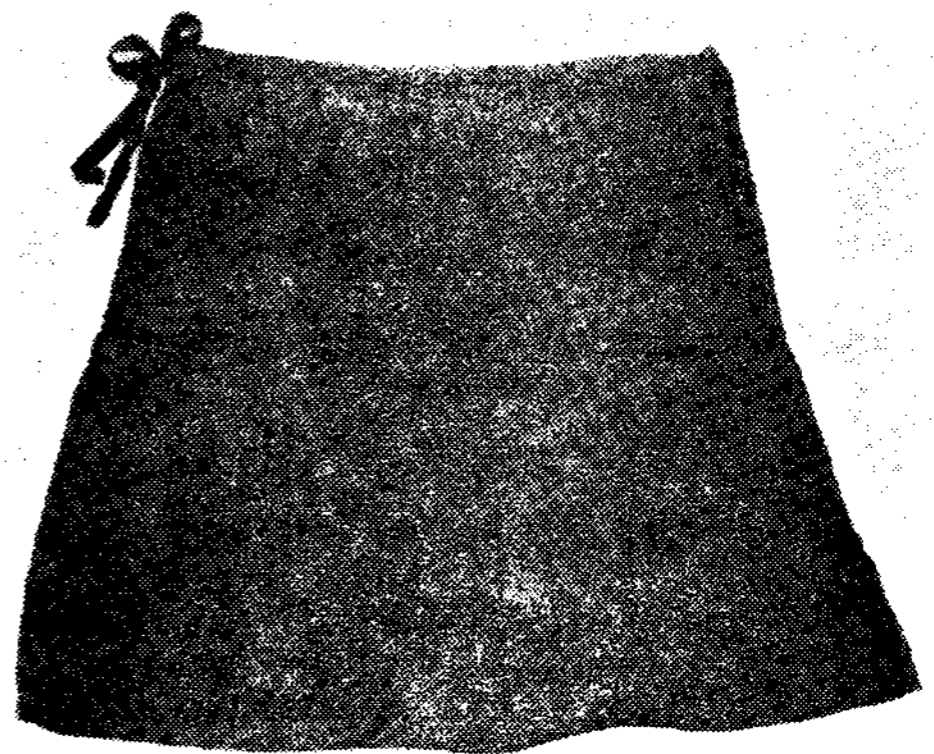
〈그림 5〉 馬王堆一號漢墓 着衣侍女俑
(출처: 中國의 博物館Ⅱ)

3) 裙

衣服에 있어서 上을 衣라 하고, 下를 裳이라 부른다. 裳은 남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치마狀의 것으로 裙이라고도 한다. 裙은 여러 폭을 붙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隨葬衣物에 의하면 〈그림 7〉은 일종의



〈그림 6〉 漢陝西省西安 紅慶村 출토 女俑
(출처: 中國美術Ⅰ)



〈그림 7〉 馬王堆一號漢墓 濃紫赤色絹裙
(출처: 中國의 博物館Ⅱ)

27) 六服이란 周制의 王后六服으로 禕衣, 揄狄, 闕狄, 鞠衣, 展衣, 祿衣를 일컫는다.

속치마로서 素絹 4幅으로 만든 것이다. 絹裙 또는 單裙이라고도 하는데 주름이 없이 아래는 넓고, 위는 좁으며, 上部에는 緣이 들렸다. 길이 87cm, 허리둘레 145cm, 밑단둘레 193cm로 허리에 腰紐가 달렸다.

2. 쓰개類

古來로부터 인간은 머리를 노출시키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이에 따라 쓰개류가 발달하였다. 身分制度가 발달하면서 地位, 職務에 따라 服飾에 차등을 두었는데 쓰개류는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품목이 되었다. 그러므로 冠帽의 制度는 세세하게 규정되었다. 따라서 회화적, 조각적 표현의 내용을 고찰할 경우 冠帽類는 정확한 해석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전승되어 온 쓰개류는 크게 冕, 弁, 冠의 3種이다. 冕類는 중국 冠帽의 原型이고, 周代 이후의 冠帽로 기록되어 있는 弁類에는 冕類를 혼합한 文官用 爵弁도 있었으나 皮弁과 皮冠은 모두 北方系 弁類의 原形에서 由來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冠類도 각각 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皮弁과 유사한 弁類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²⁸⁾

각 쓰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巾, 幘

漢에서는 男子가 20歲가 되면 士는 冠을 쓰고 庶人은 白巾을 사용하였다 하는데 後漢末에 와서 王公, 儒者, 將軍이 비단(絹) 頭巾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러한 구별이 없어져 널리 朝野에서 常用하게

되었다.²⁹⁾

前漢의 일반적인 머리형태는 束髮을 하되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다.³⁰⁾ <그림8>은 西漢의 가장 일반적인 머리형태인 冠을 쓰지 않고 작은 巾으로 머리를 묶어 붙속 솟은 형태이다. 巾은 前漢末이 되어서야 비로소 帽箆式의 幘으로 발전하여 上下가 모두 平巾을 썼으며<그림9-1>, 일정한 관직이 있는 사람은 平巾幘 위에 紗冠을 썼다. <그림 9-2>, <그림 9-1>의 墓主는 平巾幘을 쓰고 있어 은퇴이후 집에서 平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하인 역시 平巾幘을 쓰고 있어 「後漢書」 輿服志에 平巾幘을 上下 모두가 통용한다는 예를 증명하고 있다.



1. 墓1 前室西壁人物畫像石



2. 墓1 墓內·道西壁人物畫像石

<그림 9> 密縣打虎亭一號漢墓人物畫像石摹本 (출처: 「文物」 1972. 10 期, P55)



<그림 8> 洛陽西漢空心磚墓壁畫部分

(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P59)

幘의 본연의 목적은 머리를 싸매는데 있었으나 그 후 발전하여 額部分이 加施되고 幘의 頂部 後半

28) 權兌遠(1982), "百濟의 冠帽系統考", 「史學志」 16, 단국대학교사학회, PP548~51

29) 「魏志」 武帝紀注, 傅子之言

30) 沈從文(1981), P75

部에 隆起한 兩耳를 설치하였다. 幘은 중국 고대에는 없었던 것이나 秦이 諸侯를 平定한 후 武將들에게 붉은 수건을 부여하여 首飾으로 삼아 貴賤을 구별하였고 漢 文帝(BC 157~?) 이후 群臣이 모두 착용하였다. 또한 漢 元帝(BC 48~33)가 이마의 壯髮를 가리기 위하여 처음 幘을 사용하였으나 머리를 덮는 巾인 屋이 없는 半頭幘(無屋幘)을 착용하였다하며, 후일 王莽이 無髮인 禿頭였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巾을 無屋幘의 內緣에다 縶부하였다고 한다. 또한 幘을 사용하는 目的이 頭髮을 감싸는데 있었기 때문에 항시 冠 밑에 사용한 內冠의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 고대에는 冠을 착용할 수 없는 下級官吏가 주로 幘을 사용하였다.³¹⁾ <그림 10>



<그림 10> 前漢 陝西咸陽村楊相家灣出土加彩持盾兵士：
平巾幘 착용 (출처: 「服飾篇 上」 P. 88)

그 후 점차 顔과 額 부분을 만들어 頭巾과 額部分을 연결하여 幘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北魏

孝文帝(499~?) 때에 이르러서는 顔과 額의 部分을 높이고 耳를 달고 頭巾 部分을 높여서 지붕모양으로 만들어 뒷 부분에서 結合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上·下 群臣들이 貴賤을 막론하고 이를 착용하게 되고 文人의 것은 長耳, 武人의 것은 短耳라 하며 幘의 後部를 垂飾한 收를 첨가하였다.³²⁾ 이것이 漢代 이후 계승되어 冠이라는 稱으로 사용되었고, 注에 進賢冠은 長耳이고 惠文冠은 短耳라 하였다. 後漢末 都邑에서 流行한 幘은 額이 짧고 耳가 길며, 上部分이 짧고 下部分이 길며, 幘의 頂部 後半이 隆起하여 左右에 兩耳가 달렸다고 하였으며, 顔題나 耳의 모습은 대부분의 경우 3角形으로 裁飾하고 있다.³³⁾ 이와같이 中國 古代에 머리를 동여매는 수건과 頭髮을 덮는 巾을 結合하여 발전한 幘은 冠의 모습을 갖추어 下級官人 뿐 아니라 모든 官僚들이 착용하게 되었다.

2) 長冠

長冠은 一名 齊冠으로 高祖가 미천했을 때 쓰던 것이었는데 그 후에도 그것을 좋아하여 쓰고 다님의 로써 劉氏冠이라고도 했다. 그의 출신지인 楚의 이름을 붙여 楚冠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竹被로 만든 위에 漆紗한 것으로 高7寸, 廣3寸이다.³⁴⁾ 지금까지 出土된 것들중 劉氏冠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11>을 들 수 있다.³⁵⁾ 高7寸이란 <그림 11>에 보이는 바와같이 頭上의 높이는 頭의 上下 길이의 약 1/2이며, 대체로 漢의 7寸에 해당한다. 이 男俑은 짙은 남색의 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後漢書」 輿服志에 長冠에는 衲玄(濃青黑色)服을 입는다는 것과 부합된다. 馬王堆3號漢墓出土의 帛畫 中 墓主와 1號漢墓出土의 帛畫 中 女主人을 영접하는 男子들<그림12>이 劉氏冠을 쓰고 있다. 高祖8년에 命을 내려 爵位가 公乘³⁶⁾이상이 아니면 劉氏冠을

31) 「說文通訓」 定聲, '幘 後漢書輿服志, 古者有冠無幘 至秦乃加武將首飾, 爲絳袖, 以表貴賤, 漢文後, 上下群臣階服之, 按, 元帝額有壯髮, 不欲使人見, 始進幘服志, 然尙無巾, 如今半頭幘而已, 王莽無髮, 乃施巾 故語曰, 禿幘施屋'

「急就篇」, '幘者, 韜髮之巾, 所以整嬾髮也, 常在冠下, 或單著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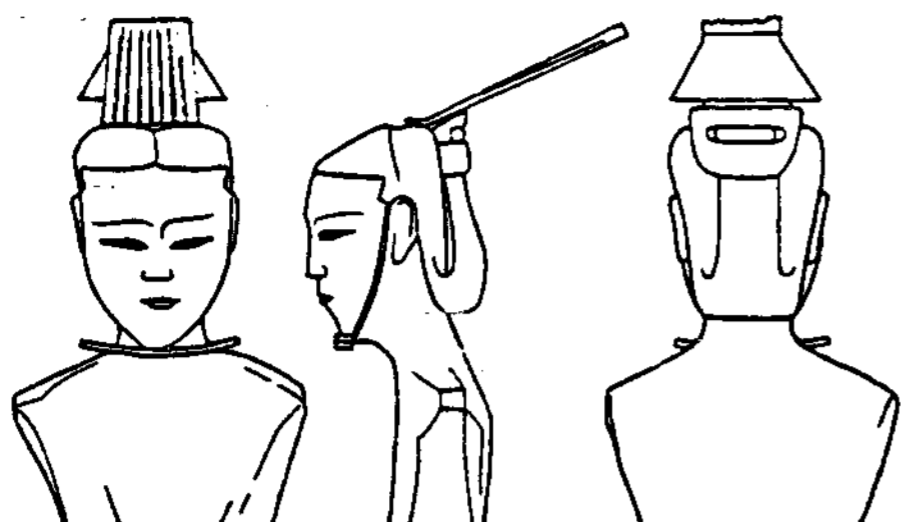
「獨斷」下, '幘者, 古之卑賤執事不冠者之所服也'

32) 「後漢書」 輿服志, 11~20

33) 尙秉和, 「中國社會風俗史」, P12

34) 「後漢書」 輿服志, 五

35) 沈從文(1981), P62



〈그림 11〉 馬王堆一號漢墓 戴冠男俑
(출처: 「長沙馬王堆一號漢墓上」)



〈그림 12〉 馬王堆一號漢墓 帛畫中部
(출처: 「長沙馬王堆一號漢墓下」)

서 武人들의 通冠으로 사용한 惠文冠이 漢代에 와서 文官의 進賢冠과 並行하여 武官의 通服으로 사용된 籠冠 形態(武冠, 大冠)로 발전하고 金璫, 貂, 蟬을 加飾하여 帝王의 近臣에 까지 사용되었다. 後에 北朝冠制의 定型이 된 漆紗籠冠은 여기로부터 발전 되었다.³⁹⁾



〈그림 13〉 馬王堆一號漢墓 漆紗冠
(출처: 中國의 博物館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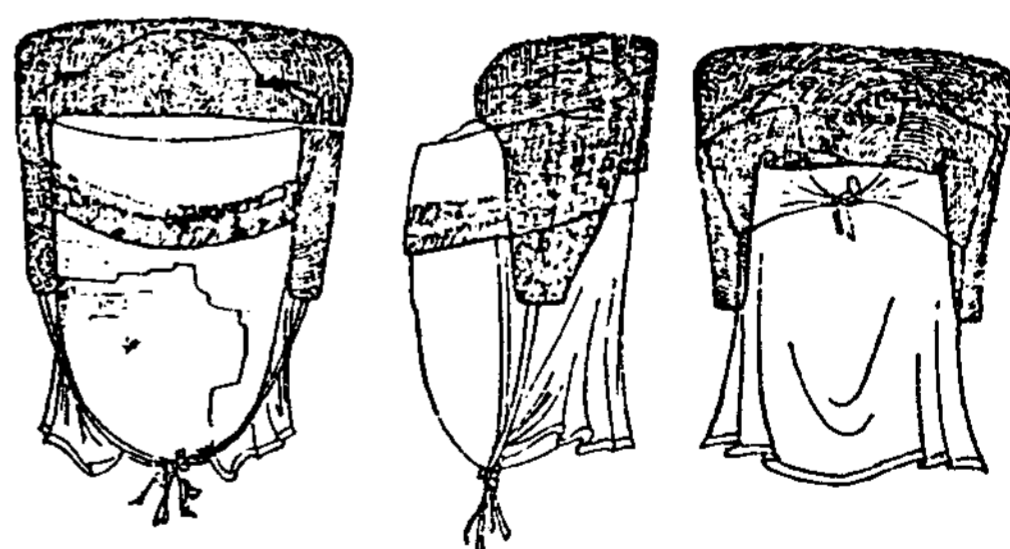
〈그림 13〉은 길이 26.0cm, 폭 15.9cm, 높이 27.0cm의 漆纜紗冠으로서 絹絲 로 짠 다음 칠을 해 고착시켜 실을 강화했다. 이것을 쓰는 방법은 〈그림 14〉로 알 수 있으며 〈그림 15, 16, 17〉 외에도 여러 화상석과 회화로 부터 이러한 武弁 大冠의 착용 모습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³⁷⁾

3) 武冠

武冠 一名 武弁·大冠은 戰國時代 趙의 惠文冠에서 由來된 것이며, 胡服을 受容했던 有名한 趙 武靈王에 의하여 金璫冠飾과 貂尾, 蟬이 插飾되었고, 이것이 秦에 계승되었다.

籠冠의 명칭을 갖고있는 武冠 또는 武弁은 北方騎馬民族의 胡風을 즐겨 受容했던 武風的인 趙 武靈王代의 惠文冠에서 전래한 武官 通服의 冠이며, 文官의 進賢冠에 해당되는 것이다.³⁸⁾ 즉 戰國時代 趙나라에



〈그림 14〉 武威磨咀子漢墓 漆紗冠
(출처: 「文物」 1972, 12期, P 12)

36) 公乘: 漢代의 벼슬이름으로 원래는 秦의 제도였으나 漢代에 이르러서는 功이 있는 신하에게 상으로 내렸다. 「後漢書」百官志 注에 公乘이란 武官 階級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비록 전쟁에 임하지는 않지만 군사와 수레를 다스리므로 公乘이라 하였다.

37) 앞글

38) 「後漢書」輿服志, 八

39) 沈從文(1981), p.60.



〈그림 15〉 後漢洛陽上林苑壁畫虎圈鬪獸圖
(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上」,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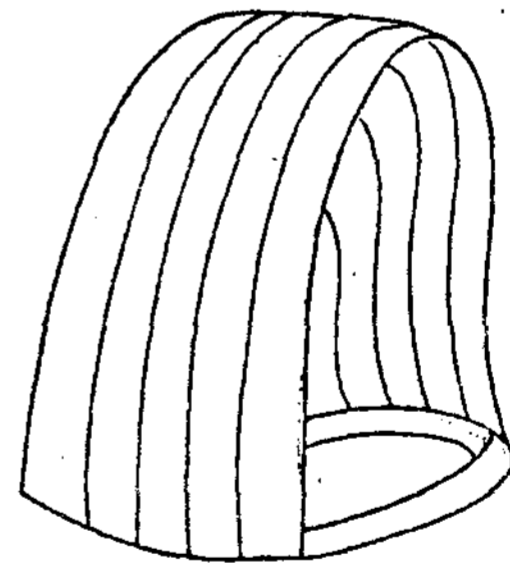
〈그림 17〉 前漢洛陽空心磚墓壁畫部分
(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P59)



〈그림 16〉 漢代磚刻亭長人物
(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P.63)



〈그림 18〉 傳洛陽金村戰國墓出土刺虎鏡騎士
(출처: 「服飾篇上」 P 91)



〈그림 19〉 緇布冠: 黑絹으로 만듦
(출처: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P.173))

대하게 된다.

武冠에 鷩尾羽를 挿飾한 것은 鷩(尾)冠이다. 武士는 몸에 잘 맞는 衣와 袴를 착용하고 左右에 鷩鳥羽毛를 簪食한 武冠 즉 鷩冠을 썼다.〈그림 18〉⁴⁰⁾

4) 進賢冠

司隸의 朝服을 進賢冠이라 칭했다. 前漢代의 司隸는 하급직이었지만 後漢代에는 한 州를 소유하며

통치하는 강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

「後漢書」輿服志에 의하면 進賢冠은 古代의 緇布

40) 「古禽經」, '鷩冠, 武士服之, 象其勇也'

「後漢書」輿服志 十, '羽林左右監冠武冠, 加雙鷩尾'

41) 司隸는 범죄자와 포로, 노예 및 일반 노동자를 감독하고, 도로, 도랑등의 토목공사를 담당하며, 都城 주변의 순찰 경비도 맡았다.

冠<그림19>이며 儒者가 쓰는 것이다. 신분에 따라 公候 3梁, 中2천石이상 博士까지 2梁, 小吏이하 私學의 弟子까지 1梁으로 신분에 따라 梁數에 차등이 두어졌다. 前高 7寸 後高 3寸이므로 앞에서 뒤로 급하게 경사진 것을 알수 있으며 <그림 20>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後漢晩期山東沂南出土畫像石拓片
(출처:「服飾篇上」, P106)

5) 委貌冠, 皮弁

委貌冠은 公卿諸侯大夫로서 禮를 행하는 者의 祭服이며 보좌역은 皮弁을 쓴다. 「後漢書」輿服志에 委貌冠과 皮弁은 同制로 進賢冠으로 부터 발전한 것이며 앞은 높고 넓으며, 뒤는 낮고 좁은 형태라 한다. 委貌는 周代의 冠名이라 하고 冕冠과 같이 縱板이 없이 黑色縉으로 委武⁴²⁾를 댄 玄冠과 같다. 笄가 있고 紘이 달린 것은 皮弁이라 하며 一名冠弁이라 하였다. 「釋名」에 皮弁은 양손을 가볍게 합당한 형태와 유사하다고 있다. 顧愷之의 女史箴圖의 남자가 쓴 蓮瓣狀으로 장식된 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그림 21>.

6) 爵弁

爵弁⁴³⁾은 天地, 五郊, 明堂에 제사지낼 때 雲翹舞를 주는 樂人이 쓰는 것으로 夏의 收, 殷의 鬲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림 21> 傳 顧愷之의 女史箴圖부분
(출처:「中國古代服飾史」, P157)

「禮記」, 王制篇에 大禮 때의 冠으로 夏后氏는 收, 殷人은 鬲, 周人은 冕을 썼다하며 常禮時에 通用된 冠에 대하여 「禮記」郊特牲에 夏代는 收, 殷代는 鬲, 周代는 弁이라 하였다. 大禮와 常禮의 差는 周代에 冕과 弁으로 구별되었으며 弁은 冕에 다음가는 것으로 大夫이상은 冕弁을 쓰고 士는 弁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弁은 다시 文官用으로 爵弁이 있고 武官用으로 皮弁이 있었는데 爵弁은 冕旒冠과 유사하나 旒가 없으며 그 빛은 赤黑色의 布이고 弁板인 縱의 前後差가 없이 平平하다고 하였다.



<그림 22> 前漢河南洛陽出土畫像碑부분
(출처:服飾篇上, P90)

42) 委武는 冠帽의 下部를 두른 것, 혹 臺輪이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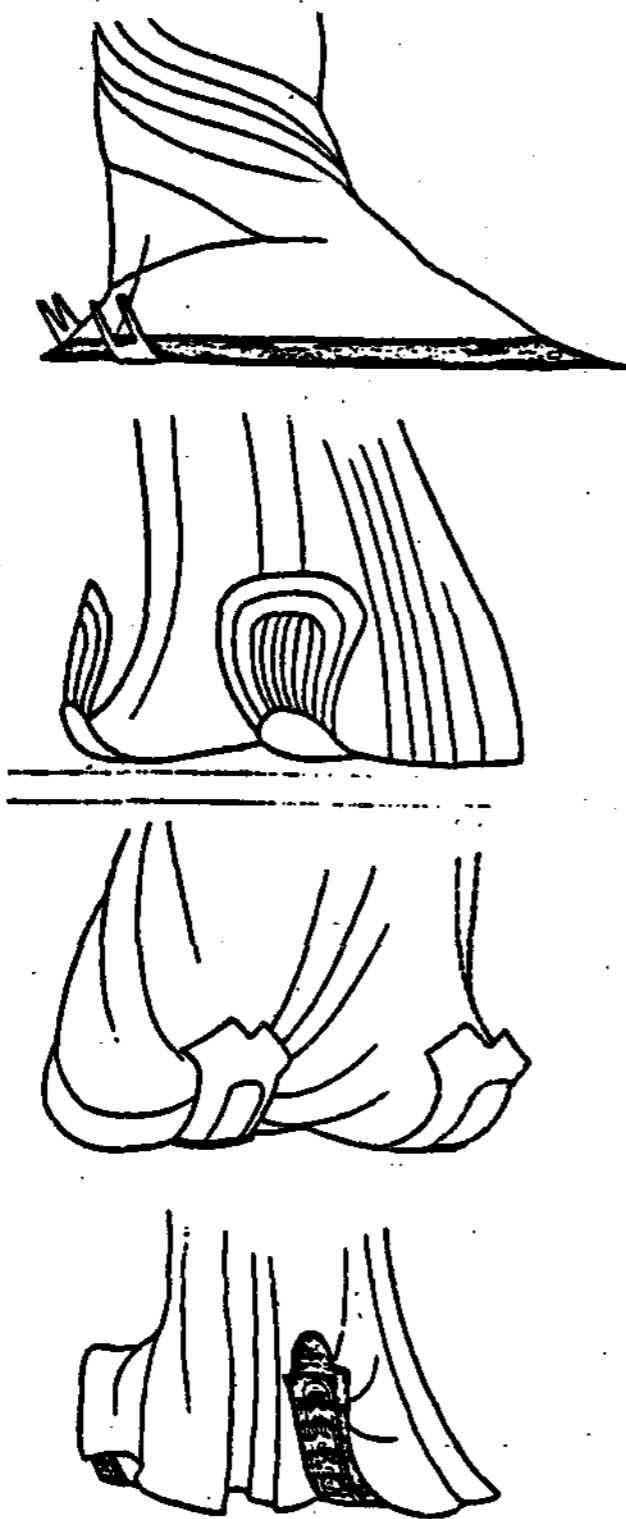
43) 原田淑人(1967), 「增補 漢六朝의 服飾」(東京:東洋文庫), P62: 原田淑人은 爵弁이 冕의 일종이라고 한다.

〈그림 22〉의 인물이 쓴 冠帽을 周錫保는 楚冠의 하나인 解豸冠이라고 했으나 中華五千年文物集刊의 「服飾篇」에서는 爵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漢代의 冠帽에는 여러종류가 있으나 現 단계에서는 실증적 고찰이 어려우므로 차후 자료를 보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신발類

馬王堆1號漢墓의 墓主가 신고 있는 岐頭履 〈그림 23-1〉는 앞 부분이 납작하며 뒤로 젖혀진 형상을 하고있다. 「漢書」王莽傳, “句履”의 注에 ‘오늘날 齊祀의 履와 寫의 머리장식으로 履에서 1~2寸 나와 있으며, 그 형태는 2 갈래져 있다’는 설명에도 부합된다.



〈그림 23〉履(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P135)

1. 馬王堆一號漢墓帛畫中 岐頭履
2. 鄧縣南北朝墓模印彩繪磚, 中 笏頭履
3. 閻立本列帝圖中 隋文帝侍臣中 高齒履
4. 吐魯番阿斯塔那出土唐仕女圖中 重台履



〈그림 24〉馬王堆一號漢墓出土 中 青絹履

(출처: 「中國의 博物館II」)

또 出土物중에는 신발 앞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履 〈그림 24〉가 있는 데 이것은 후에 등장하는 雙歧履의 前身이다. 出土物의 표면은 青絹絲로 밑에서 위로 짜 올라간 毛織이고 위사는 점점 굽어져 짠 울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바닥은 麻絲로 짠으며 出土당시 여성의 遺體가 신고 있던 것으로 死者가 생전에 신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出土物중에는 〈그림 23-1〉에 보이는 岐頭履도 있다.

後代에 나타나는 履중에도 신발 앞부분이 높이 솟은 것이 여럿 보인다. 〈그림 23-2〉는 笏頭履라 하는 것으로 원래 男子, 女子用의 구별이 있어 男子의 것은 앞머리가 네모지고, 女子의 것은 둥글었으나 오래지 않아 혼동되어 구별이 없어졌다. 이것은 晋代 高齒履에서 변화된 것이며 唐代에 이르러 위로 한 쪽이 솟아 올랐다하여 高牆履라 하였다. 上部에 또 중첩된 것이 山 모양 같아서 重臺履라고도 했다. 永泰公主墓壁畫中에서 일련의 궁녀들이 신은 것이 모두 重臺履이다.

IV. 結論

漢代에는 冠服의 체계가 확립되었고, 漢의 服制는 2,000년간 중국 및 東아시아 諸王朝의 服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漢의 일반 服裝은 古來부터 입었던 上衣下裳式의 深衣制외에 활동에 간편한 胡服이 보급되어 漢服과 胡服이 착용되었다. 漢의 衣服 中에서 曲裾袍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曲裾袍는 漢의 가장 특징적인 衣服이라고 생각된다. 그외에 上衣의 기본인 襦, 長襦, 袍, 直裾禪衣인 襜褕, 솜 든 袍인 襦과 胡服인 褶이 있다.

쓰개류는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므로 자세하게 구분되었다. 巾에서 발달한 幘은 漢代 이후 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平巾幘은 漢代에 上下가 통용한 쓰개였으며 일정한 관직이 있는 사람은 平巾幘 위에 紗冠을 썼다. 長冠은 高祖가 미천했을 때 쓰던 것으로 格이 높아져 公乘이상이 착용케 하였다. 武冠은 武風的인 惠文冠에서 유래하여 武冠이 通用하던 冠이었고, 후에 北朝冠制의 定型이 된 賢紗籠冠으로 발전하였다.

文官은 신분에 따라 梁 數에 차등이 있는 進賢冠을 착용하였다. 委貌冠은 皮弁과 同制로 進賢冠으로부터 발전하였으며, 爵弁은 冕旒冠의 일종이나 旒가 없으며 文官用이며 武官은 皮弁을 썼다.

신발류로는 앞부분이 납작하여 뒤로 젖혀진 형상을 한 歧頭履가 있고, 後代에 등장하는 雙歧履의 前身으로 앞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履가 있다.

馬王堆 漢墓 出土物은 漢代 초기의 높은 문화수준과 기술수준 및 당시 봉건귀족의 호화로운 생활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參 考 文 獻

「古禽經」
「急就篇」
「獨斷」
「方言」
「西漢會要」
「釋名」
「說文通訓」
「禮記」

「魏志」

「後漢書」

權兌遠(1982), “百濟의 冠帽系統考”, 「史學志」, 16, 단국대학교 사학회.

「文物」1972. 9期, 10期, 12期

杉本正年(1979),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尙秉和, 「中國社會風俗史」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王宇清(1978), 「中國服裝史綱」, 修訂本, 台北: 中華大典編印會

原田淑人(1967), 「增補 漢六朝의 服飾」, 東京: 東洋文庫

任明美(1988), 「中國의 古代服飾研究 I」, 서울: 경춘사.

林巳奈夫(1976), 「漢代의 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張末元著, 金英淑譯(1984) 「漢朝服裝圖樣資料」, 서울: 東洋服飾研究院

周錫保(1984),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中國의 博物館 II, 「湖南省博物館」(1981), 講談社 中華五千年文物集刊(중화민국75), 「服飾篇上」, 台北.

何浩天(1966), 「中國袍服織繡選華」, 台北: 國立歷史博物館

湖南省博物館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1973), 「長沙馬王堆-號漢墓 上·下」, 平凡社